

7월 지육시세는 4,050원/kg 예상

2005년 6월 4일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는 4,667원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돈가 추세는 국산 돼지의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 부족은 첫째로 지난해 여름의 기록적인 무더위와 그로 인한 어미돼지의 번식 실패에 따른 번식성적 저조와, 둘째로 2004년 10월부터 크게 늘어난 PMWS로 인하여 이유자돈부터 육성돈까지의 폐사두수가 급증하여 출하두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돼지 도축두수는 5,632천두로서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축두수 6,117천두 보다 약 485천두가 감소하여 약 8%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동기간 보다 감소된 비육돈 도축두수 485천두는 정육량으로 24,9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금년 동기간의 돼지고기 수입증가량에 비해 49,785톤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돼지고기 시장의 지육단가 동향은 국내 산 삼겹살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전체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개발팀

돼지고기 시장의 돈육 부족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2005년 5월까지의 돼지 도축두수 추세로 볼 때 2005년 6월과 7월은 60개월 만에 월간 돼지 도축두수가 1백만두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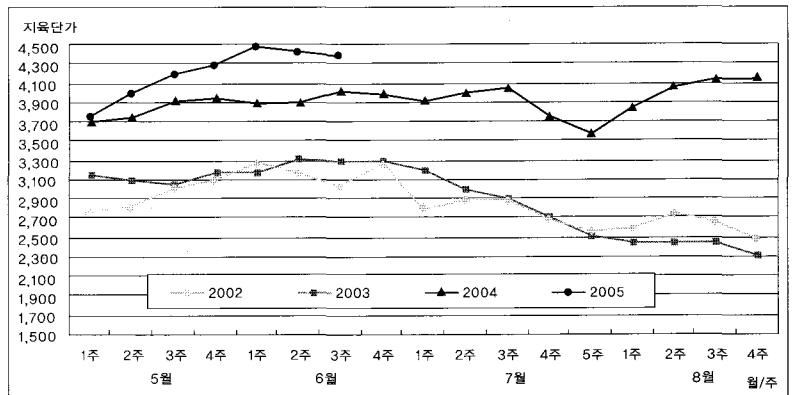
때문에 이러한 사상 최고 돈가는 당분간 지속 되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돼지고기 수입량 또한 향후 장기간의 고돈가 추세에는 부담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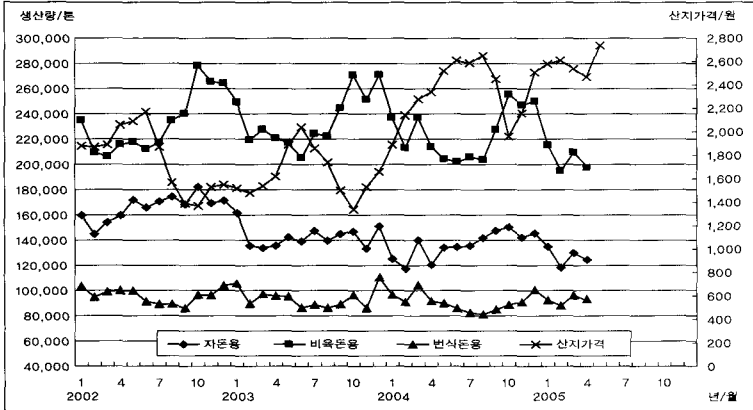
돼지고기 수입량의 급증으로 수입물량이 지난 200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43,418톤에 비하여 약 215% 급증하여 2005년도 5월까지의 93,203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돼지고기의 공급 증가와 금년 3월 이후 PMWS의 감소와 번식성적 향상으로 인한 출하두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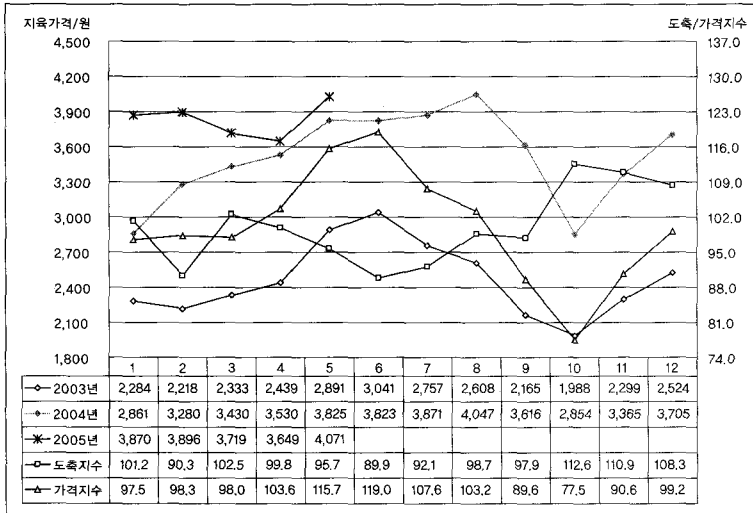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국산 소고기의 수입재개가 이루어지면 돈가의 약세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돈가 시기에 확보한 자금으로 돈가 하락 기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돈가 상승이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자금의 유동성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돈가 상승 추세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기반이 역전되어 세계 돈가의 하락과 미국 소고기의 수입 재개가 이루어지면 돈가도 점차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 늘어난 모돈이 출하물량 증가로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농장의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4P 질병의 주요 원인인 밀사와 연속 일괄 사육체계보다는 올인 올라웃, 2-Site, 3-Site로 농장을 구조 개선하여 향후 한국 양돈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에 우리나라 양돈이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 버릴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2005년 7월 돈육 시장 동향을 살펴 보면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6월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월간 도축두수가 1백만두 이하를 유지하여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일 것이나 수입 돼지고기의 공급량 증가로 인하여 공급 부족에 따른 가

격의 상승은 어렵다 하겠다.

반면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7월 둘째, 셋째 주는 초복과 중복을 지나면서 삼계탕을 비롯한 각종 영양 보신용 음식의 소비 급증과 이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지육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5년도 7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4,05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돈**